희망봉사단, 효자2동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희망봉사단에서 독거어르신 댁 집수리해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나선 희망봉사단은 지난 3일 전주시 효자2동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제121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희망봉사단 회원 30여 명은 효자2동 거성아파트의 한 독거노인 가구에 도배 작업, 장판 및 주방 개수대 교체, 단열공사 등 노후화된 집 내부를 깨끗하게 정비했다.

희망봉사단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시는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집수리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봉사단'은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인테리어·실내건축공사업 관계자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로, 지역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가구와 긴급복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암 이야기' 교육 실시

임실군이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암 이야기(국가암검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지역 암센터와 연계해 대한영양사협회 전북지부 회장 박영민 임상영양사를 초빙해 '암 예방 관리를 위한 식사요법'란 주제로 진행됐다.

암 예방에 좋은 식생활 방법 및 암의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 요인을 알아보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조리 방법 등을 강의했다.

박영민 강사는 "암의 원인 중 환경인자가 80~9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환경인자 중에서도 식생활이 암 발생의 약 30%나 관여한다"며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제가 덜된 곡류와 채소, 과일의 섭취를 늘리고 가공된 육류의 섭취를 삼가고,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싱겁게 천천히 식사할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인사

전북 소방본부

◇소방정 승진 ▲이주상 119종합상황실장

◇소방정 전보 ▲강봉화 소방행정과장 ▲강동일 순창소방서장

알림

▲전북대총동창회·전북대 공동주최 '지방선거당선동문 축하연 및 총동창회 동문대상 시상식' = 일시: 7월 8일 오후 6시30분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 문의: 063-270-3641(전북대총동창회 사무국)

"올림픽 출전 목표"

남매 레슬러, 전국대회 동반우승

남매 레슬러가 전국대회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하며 레슬링 명문가의 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에서 열린 제47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이태빈(원광대)과 이나현(전북체중)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빠인 이태빈은 남자 대학부 자유형 125kg급에 출전해 결승전에서 만난 영남대 선수를 4대0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전북체고 졸업생이기도 한 이태빈은 고등학생 시절 전북 대표로 서울에서 개최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동생 이나현은 이 대회에서 자유형 61kg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고,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훈련장과 시합장을 오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배운 이나현은 전북체중·체고 이준진 감독의 권유로 레슬링에 입문했다.

이에 전북체중으로 전학을 와 본격적인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했고, 1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 현재 높은 수준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한편 남매 레슬러들은 2028년 미국 LA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동반 출전해 금메달을 목표로 맹훈련중이다.

/장은성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 후원자 개발·그린노블클럽 위촉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는 4일 익산시 궁웨딩컨벤션에서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의 중점사업인 '익산시민 1% 후원자 개발 선포식'과 고액기부 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임신혁 부회장과 이홍렬 홍보대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는 2019년 유기달 후원회장(일신산업 부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47명의 후원회 회원이 활동 중이며, 익산시는 물론 전라북도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꾸준한 기부활동과 후원자 개발에 힘쓰고 있다.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는 아동들을 위한 후원회 차원의 활동을 고민하던 중 익산시 인구 27만8,496명(2021.12.31자 통계)의 1%, 2,784명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자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선포하였다. 현재 익산시의 어린이재단 후원자는 1,960명으로 2023년 6월까지 824명의 후원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기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장은 "아동친화도시 익산시에서 우리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오늘 후원자 개발 선포식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대 총학생회, 농촌봉사활동 펼쳐

전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최근 고창군 및 진안군 일대 7개 마을에서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촌지역에 힘을 보태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지역사회 섬김의 활동 일환이다.

이 행사에 전주대 학생 250여 명이 참여해 인삼밭, 고추밭, 복분자밭에서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마을 환경 미화, 음식(고구마 맛탕 등) 만들어 대접하기, 어르신 가정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환 총학생회장은"짧은 기간이지만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전주대 학우 여러분에게는 봉사 정신 함양 및 보람된 시간이, 농촌마을에는 잠시나마 활기 넘치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행 학생취업처장은"하계 방학 기간이 농사철이 가장 바쁜 시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다"며 "우리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농가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인후2동·동현교회, 손길 모아 반찬 나눔 실천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동장 이진숙)은 지난달 30일 전주동현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매달 관내 식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지원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저소득층 홀로 어르신들에게 영양이 듬뿍 담긴 반찬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도 살폈다.

인후2동의 '손길 모아 반찬 나눔' 사업은 2월부터 매월 1회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 및 취약 계층 2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이진호 전주동현교회 목사는 "반찬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받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고 보람차다"면서 "앞으로도 영양 가득하고 다양한 밑반찬을 만들어 행복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진숙 인후2동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홀로 어르신들의 반찬 걱정을 덜어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집 밥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 부모교육 실시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는 7월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이비 마사지, 성장기 마사지, 명상요가, 좋은 부모, 연령별 놀이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풍성한 교육이 마련돼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장난감 대여, 영·유아 놀이체험실, 시간제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리·미술·오감놀이 등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영유아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블로그(blog.naver.com/momhappynw)를 참고하거나 전화(063-620-524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증진하고 가정보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운영활성화로 영유아 부모들이 자주 찾는 영유아 놀이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